

민·관·학 ‘반도체 원팀’ 인력 양성에 뜻 모아

- 22일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및 반도체 20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
- 고용부 장관 반도체 공정 실습 참관, 학생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장 소통 간담회
- 폴리텍대학에 올해 반도체 10개 학과 신설, 내년부터 1,025명 양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 ‘원팀(one team)’ 체계 구축에 나섰다. 22일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이날 폴리텍대학 성남 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원익IPS, 탑엔지니어링, 코아시아-세미 등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 (인력 전망) 반도체 산업은 '21년 기준 향후 10년간 5.6만명의 기술·기능인력 추가 수요 발생 <'22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향후 10년 반도체산업 인력 전망>

(미충원) '23년 상반기 미충원 비율 27.3%(2.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4.4%p, 전 산업 평균(12.0%) 대비 15.0%p 높음 <한국고용정보원, '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협약에 참여한 20개 기업·기관과 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직무별·수준별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기업·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산업현장 교수로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기업·기관은 폴리텍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달렸고,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며, “반도체는 물론 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첨단분야 맞춤형 훈련 확대와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매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주)원익IPS 안태혁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 필요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도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여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반도체 학과 신설을 통해 인력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형 훈련을 강화해 기업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겠다”라고 하며, “우수한 인력양성에는 정부와 기업, 대학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반도체소재응용과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증착공정(웨이퍼가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산화물을 입히는 과정) 실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업을 참관한 이 장관은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편,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5년간 매해 10개씩 신설할 계획이다. 1차로 올해는 폴리텍대학 인천·아산·대전·광주·부산·반도체융합 등 6개 캠퍼스에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폴리텍대학은 내년에 20개 학과에서 1,025명(모집 기준)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붙임1 행사 개요

붙임2 장관 인사 말씀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진혜숙 (044-202-7274)
담당 부서	한국폴리텍대학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과 장	이채민 (032-650-6742)

붙임 1**행사 개요**

- **행사명:**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용노동부-반도체기업-한국폴리텍대학 간 민·관·학 업무협약
- **일 시:** '23. 11. 22(수) 09:30~11:45
- **장 소:** 폴리텍 성남캠퍼스(경기 성남시 수정구) 학생회관 3층
- **참석자:** 고용노동부, 폴리텍, 반도체기업 대표 등 약 60명
 -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 (폴리텍) 이사장직무대리, 서울정수캠퍼스 학장 등 25명
 -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 (주)원익IPS 대표이사 등 25명
- **세부 행사일정**(약 2시간) ※ 행사전체 공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9:30~09:40	10'	■ 티타임	본관 2층
09:40~10:10	25'	■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 점검 - 반도체소재응용과 수업 참관, 러닝팩토리실 시연	누리관1F
10:10~10:40	30'	■ 인사말씀 - 고용부장관,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 반도체기업 대표 등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학생회관 3F
10:40~11:10	30'	■ 반도체교육 관련 현장 의견 청취 - 반도체기업, 재학생, 교수 등	학생회관 2F 세미나실
11:15~11:45	30'	■ 오찬	본관 교직원식당

〈모두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반도체기업, 한국폴리텍대학 간
“반도체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반도체협회 탁승수 전무이사님
(주)원익IPS 안태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협약기업 대표님
한국폴리텍대학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변화와 인력양성의 중요성〉

‘새로운 석유’로 불리는 반도체는
국제적인 경제 경쟁의 승패를 좌우함을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 고려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개편*은
지속적인 반도체 인재 육성과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23.8. 한국무협협회, 미국과 EU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기업과 힘을 합쳐
반도체 혁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지원과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전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2.7.21)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폴리텍대학과 반도체기업의 역할과 업무협약의 의미〉

오늘 모이신 반도체산업협회와
(주)원익을 비롯한 19개 기업은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폴리텍대학과 반도체기업간에 체결하는
인재양성 업무 협약은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신성장분야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협약식과 같은 산·학·관 협력을 통해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력양성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반도체기업과 폴리텍대학 간의
맞춤형 인재양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